



소진공-코트라, 소상공인 수출 기업화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소상공인 수출 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본부 간 협의회를 본격 운영한다. 15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해외 진출을 했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오른쪽)이 강경성 코트라 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셀트리온, S&P CSA서 생명공학 Top 1% 선정

셀트리온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지속가능성평가(CSA)'에서 생명공학 부문 '톱(Top) 1%'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년 대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 개선 폭을 인정받아 '인더스트리 무버(Industry Mover)'에도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에서 셀트리온 지속가능경영실 이동진 상무(오른쪽)가 트로피를 받고 있다. /셀트리온



대우건설-한전, TBM 설계기술 고도화 '맞손'

대우건설은 한국전력과 TBM(Tunnel Boring Machine) 설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우건설 심철진 토목사업본부장(오른쪽)과 한전 김대현 전력연구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TBM 기술 개발 및 공동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



KT, 봄철 산불 조심기간 화재 긴급복구 훈련

KT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앞두고 화재 대응 긴급복구훈련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과 국사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도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훈련에는 현장 소통 플랫폼 'SFC(스마트 필드 체크)'가 활용된다. /KT

인사

- ◆ 교육부 > 전출△외교부(주 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하유경
- ◆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 조창배

부음

▲홍용기씨 별세, 방병철(충북 단양군 전 정무보좌관)씨 장인상 = 14일 오후, 빈소 청주 하나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16일 오전 6시30분. 043-270-8400

장인화 “탈탄소 위해 전 세계 철강업계 공조 필수”

(포스코그룹 회장)

세계철강협회 정기회의에서 강연
업계 대표로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포스코그룹은 장인화 회장이 1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정기회의에 참석해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회장은 “글로벌 철강산업이 성공적인 탈탄소 전환을 이루고 탄소저감 강제가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세계 철강업계의 긴밀한 공조와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 둔화와 에너지 비



14일(현지시간) 포스코가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에 선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우르 달베레르 세계철강협회장 겸 튀르키예 출라클루 메탈루지 회장. /포스코홀딩스

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탈탄소 전환은 철강업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포스코의 탈탄소 로드맵을 공유했다.

장 회장은 이번 정기회의 기간 한국 철강업계를 대표해 협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했다. 회의에는 중국 보무강철, 일본제철, 인도 JSW 등 글로벌 철강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에너지 위기 대응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산업 영향, 탄소배출 측정 방식의 국제 표준화 등 중장기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장 회장은 이어 사단 전달 인도 JS

W그룹 회장, 리우지엔 중국 하강그룹 동사장 등과 잇달아 만나 해외 철강 투자와 탄소저감 기술, 공급망 안정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포스코는 이날 열린 회원사회의에서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Sustainability Champion)' 선정패도 받았다. 이 인증은 세계철강협회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에 수여하는 것으로, 포스코는 지난 2022년부터 5년 연속 선정됐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동아에스티, 이탈리아 경제단체 접견

콘핀두스트리아 소속 대표단에 R&D시설, 생산시설 등 소개

동아에스티는 지난 14일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에 이탈리아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 소속 대표단이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이다.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기업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게 송도 연구소 최첨단 R&D 시설과 송도캠퍼

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또한 R&D 중심 경영 방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통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동아에스티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신약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R&D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임상 단계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략적 제휴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 효율과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또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연계 강화해 개발 단계부터 상업화, 생산, 공급까지 고려하는 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경쟁력과 역량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금호석유화학, 재활용 ABS로 장영실상

(고부가합성수지)

자동차 내장용 소재로 고도화

금호석유화학이 재활용 고부가합성수지(ABS)의 한계를 넘어서 자동차용 고사양 소재 상용화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폐가전에서 회수한 재활용 플라스틱을 자동차 내장재용 소재로 고도화하고 실제 양산 적용까지 이끌어내면서 재활용 소재의 활용 범위를 한층 넓혔다는 평가다.

금호석유화학은 15일 서연이화, 현대자동차 연구진과 함께 재활용 ABS 플라스틱을 자동차 내장용 소재로 고도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 제12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장영실상은 학계와 정부기관 전문가들이 기술 혁신성과 시장성, 경제 적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들이 장영실상을 수상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는 국내 대표 산업기술상 가운데 하나다. 금호석유화학의 장영실상 수상은 1996년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이며 에너지·환경 분야 수상은 처음이다.

이번 수상은 TV와 냉장고 등 폐가전에서 회수한 재활용 ABS를 자동차용 내열 ABS 소재로 개발하고 이를 국내 최초로 완성차 양산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원관희 기자 wkh@

LS일렉트릭, iF 디자인 어워드 3관왕

제품·서비스 디자인 동시 수상

LS일렉트릭은 세계 3대 디자인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총 3개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상작은 스마트 차단기 '컴팩트 ACB'와 차세대 자동화 솔루션 'XGT Integrated Safety PLC'가 제품 디자인 부문, 에너지 컨설팅 플랫폼 'Beyond X - Enable'이 서비스 디자인 부문에서 각각 선정됐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시작된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으로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 전반에 걸쳐 혁신성, 사용성, 심미성, 영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올해 대회에는 68개국에서 약 1만 개의 후보작이 출품되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LS일렉트릭은 제품 완성도와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 설계 역량을 인정받아 3개 부문에서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관희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 협력은행 감사패 수여식'에서 (왼쪽부터)박준형 우리은행 소호사업부장, 이승목 신한은행 고객솔루션그룹 상무, 오은선 기업은행 자산관리그룹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현욱 국민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 민병도 농협은행 GIB(글로벌투자) 부문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시중은행 6곳에 감사패 수여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협력은행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시중은행 6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1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수여식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에 협력한 은행들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이 감사패를 받았다.

금융기관은 노란우산 누적 가입자 수 330만명 중 약 59%(195만명)를 유지하는 등 노란우산 가입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은행을 통한

노란우산 가입자는 13만8865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51.9%를 차지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은행에서 노란우산을 가입한 고객의 91.3%가 은행 대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같은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 중인 공적제도다. 소득공제(연 최대 600만원), 복리 이자 적용, 공제금 압류금지 등의 혜택이 있다.

6대 시중은행 외에도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MG새마을금고, 우체국, 토스뱅크를 포함한 전국 16개 금융기관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서울커피엑스포', 글로벌 트렌드 소개

오는 18일까지 코엑스서 열려

커피 한 잔을 넘어 카페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진화한 '서울커피엑스포'가 올해도 글로벌 트렌드와 실전 운영 해법을 제시한다.

'2026 서울커피엑스포'가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코엑스 A·B홀에서 열린다. 코엑스와 한국커피연합회

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기기·장비, 원두, 원부재료, 매장 운영 솔루션까지 커피 산업 전반을 망라하는 상반기 최대 규모의 커피 비즈니스 전시다.

올해 슬로건은 'Blend the World'. 글로벌 커피 트렌드를 공유하고 카페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원선 기자 tree6834@